

천국은 마치 거자세 한 알 같으니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1월 11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좋으신 하나님 / 다같이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1번 (시편 1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주 음성 외에는 / 찬송가 446(신) 500(구)

기도 / 박래석 집사

성경 봉독 / 마가복음 1장 14-15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조용해서 무시된 나라, 작아 보여서 거부된 복음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찬송가 445(신) 502(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3,4절 / 찬송가 588(신) 30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예수의 복음은 단순한 죄 사함이나 미래의 천국 보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미래로 미루며, 복음을 개인적 위안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2. 하나님 나라는 제국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제자로,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너무 조용해서 무시되었고, 너무 작아 보여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작게 시작된 이 나라는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3. 회개란 죄책감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주권의 이동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복음의 본질

막1:14-15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

복음은 우리의 기분을 어루만지는 제안이 아닙니다. 복음은 왕의 전령이 선포하는 공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이 땅의 참된 주권을 되찾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결정적 전환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욕망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망명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왕 아래로 들어가는 통치의 선포입니다.

그 본질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2026년, 우리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내 계획과 고집이 주인 노릇 하던 ‘나의 나라’를 내려놓읍시다. 왕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실제로 굴복할 때,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최상천 장로님, 최명희 권사님 여행 중입니다.

1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조은영(4)		박래석(11)	한정임(18)	한규철(25)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천국은 마치 겨작씨 한 알 같으니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시작입니다. 작고 미미해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숨은 가능성입니다.

보이는 변화는 더딜지라도, 안에서부터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퍼져 나갑니다. 인간의 눈과 계산으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결국 결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앞의 크기나 결과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과 행동입니다.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한 번의 용기를 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놀라운 결실로 이어집니다.